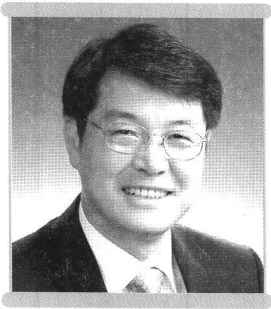


제언

현대 산업보건분야의 발전은 융합에서 시작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 동 경

오늘날 작업환경은 현대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산업구조의 현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술적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병의 분포까지도 달라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해율은 높은 상태로 남아 있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신속히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업주들의 참여의식 부족, 정부의 체계적 대응 부족, 근로자 스스로의 의식 미흡, 사회적지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지면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다.

우리는 혹시 자기 전공지식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 아니면 자기의 소속 집단이나 부서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수하지 않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지식이나 일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오히려 수요자나 이용자 아니면 조직의 발전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보건이야 말로 여러 학문간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마치 사람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듯이 학문간, 전공간, 부서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올바른 적용책이 나와 현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전문가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칭하지만 사실 내면에는 그 지식을 사회를 위하여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전문가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바르게 일하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좋은 경험은 반드시 다수의 사람 즉 사회를 위한 윤리와 정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 지식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사회를 위하고 다수를 위한다는 것이 후순위로 순식간에 밀려나고 만다.

이제 자기 일에 대한 과신, 자신의 명예나 지식에 대한 과욕은 내려두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제도적, 기술적,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서로 맞대어야 할 시간이다. 내가 주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인간공학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작업에 맞게 사람을 적용시킨다”는 인간공학적이지만 않은 접근에서 “사람에 맞게 작업을 적용시킨다”는 인간공학적인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현재는 일하고 컨트롤하는 기계와 사람과의 융합을 위해 작업장비, 도구 및 환경을 설계한다는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공학도 앞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과 한계 가치 그리고 필요조건들을 생산작업 환경과 융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협리적인 환경개선이나 디자인에서 벗어나 Macro 관점에서 융합을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결국, 노동력과 작업장의 보건안전 및 근로자 건강을 증진시키고 고품질의 작업과 쾌적한 근로생활을 위해 여러 학문과 기술이 서로 간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주인이 근로자이고 객인 근로자를 위하여 전문가들은 산업보건에 총체적인 협력을 기울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한 달 전 영국 RoSPA(왕립사고예방협회)에서 개최한 Manual Handling Trainers 과정을 수강하고 왔다. 2박 3일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며 9명이 수강하였는데 객적인 교육생을 얼마나 고려한 교육인가를 체험했다.

전문가인 강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생이 교육의 내용을 완전히 체득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교육을 100% 대리교육 할 수 있는지에 목표를 두고 줄 곳 진행해 나갔다. 한 사람의 강사가 3일 내내 강의하여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한 강사가 인력운반작업 관련법규에서 척추구조와 역할, 자세의 중요성, 기계운반, 2인 이상 공동들기, 효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들기 실습과 필기평가까지 일체를 진행해 나갔다. 성과는 매우 좋았으며 교육생들의 만족스런 모습이 뚜렷하였다.

교육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고 있는 나로서는 충격적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과연 100% 교육생을 위한 노력이었는가? 혹시, 이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니 알 필요가 없고 저쪽 전문가를 활용하면 되지, 또 이 분야도 내 분야가 아니니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리고 이 분야는 내가 건드리면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뭐라 할지도 몰라 라는 핑계로 교육생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소홀한 적이 없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이제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리드해 나가는 산업보건의 되기 위하여 우리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먼저 변화하여야 한다. 내 분야, 내 전공, 내 지식, 내 직업이란 생각을 내려놓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여 융합하는 산업보건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나부터 다짐한다. ☺